

제38회 2021 환경주일



## 2021년 제38회 환경주일 심포지엄

2021.5.25 | 화 | 11시 - 12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

(온-오프라인 병행  유튜브에서 [ncck TV](#) 검색)

| 주제 | **한국교회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실천**  
한국교회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 내용 | 사 회 : 이성호(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환영사 : 안홍택(NCCK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_송진순(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발표 2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교회의 과제\_박용권(봉원교회 목사)  
발표 3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_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토론 1 : 이해솔(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2 : 정유현(평화교회연구소 연구원)

|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기후위기기독교신학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 후원 |  환경부

## 자료집 목차

발표 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 / 3p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 집행위원)

발표 2.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교회의 과제 / 14p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녹색교회네트워크 총무)

발표 3.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 25p

이진형 사무총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토론 1. 이해솔 활동가 / 34

(YMCA 전국연맹,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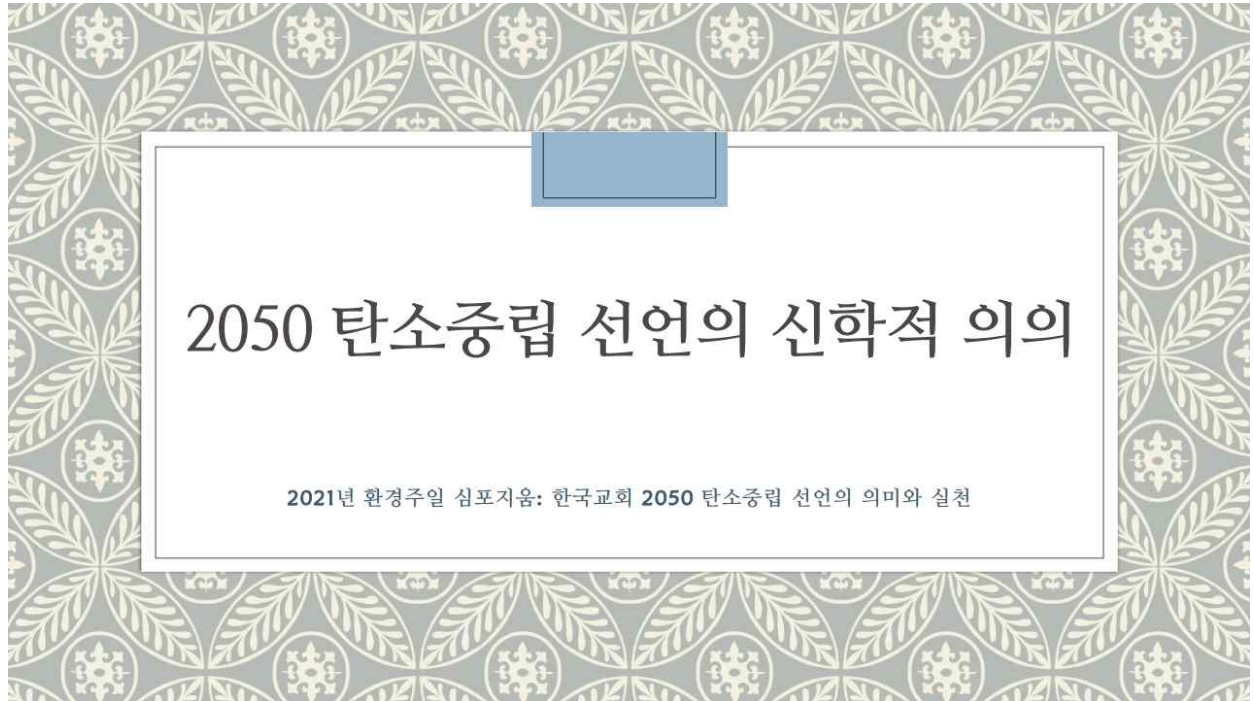
토론 2. 정유현 연구원 / 37p

(평화교회연구소, 녹색당 전국사무처 활동가)

\*참고자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 / 41p

## 발표 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 집행위원)



## 2050 탄소중립 선언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2020.10.28 국회 시정연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2020. 12. 10.

# 1. 2050 탄소중립 선언 배경

## 1) 탄소중립 추진 과정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 2020.2~ 15개 부처 범정부협의체\*의 사회적 논의 및 전략 마련
- 2020.7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 탄소중립의 첫걸음(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 주요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11 국무회의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로드맵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점검
- 2020.12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 2021. 5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 선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 1. 2050 탄소중립 선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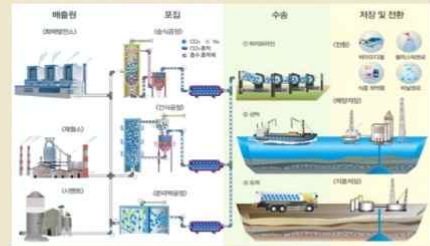
## 2) 탄소중립(Carbon Neutral)의 의미

-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을 흡수/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

- 이산화탄소는 산림이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통해 흡수, 제거하여 순배출량 0의 의미에서 넷-제로(net-zero)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Atkins-says-UKs-Net-Zero-goal-needs-new-nuclear>



<https://www.ekn.kr/web/view.php?key=37475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 1. 2050 탄소중립 선언 배경

## 3) 탄소중립 선언의 배경

- IPCC: 201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 EU: 20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통해  
 세계 최초로 유럽 대륙의 넷제로 선언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탄소중립 선언
-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이 탄소중립 선언, 120개 국가가 '탄소 제로' 국제동맹 참여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 글로벌 규제 강화, 친환경시장의 급성장

스마트에코 김익, 「국내IP환경동향보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21.



<https://public.wmo.int/en/media/press-release/climate-change-report-%E2%80%9Cwake-%E2%80%9D-call-15%C2%80C-global-warming>



# 2. 탄소중립 해법과 의미

## 1) 2050 탄소중립 비전

- 목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 방향: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 대응'
- 추진 전략: 정책방향(3)+기반 과제(1)
  - ①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② 기회: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③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기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2050 탄소중립 3+1전략			
3대 정책방향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10대과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혁신 -미래모빌리티 가속화 -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국민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강화	-재정제도 개선 -녹색금융 활성화	+ R&D확충 -국제협력 강화	

그래픽: 이송현 디자인가자 MIT 버니쿠레이

<https://www.kcma.kr/news/visualNewsView.do?newald=148880736>

## 2. 탄소중립 해법과 의미

### 2) 2050 탄소중립의 사회 경제적 해법

-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세계 탄소규제 무역 장벽 현실화
- 기업의 가치평가의 전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 글로벌 기업의 RE100 참여 및 협력사 지원 압박

구글·애플·GM 등 전세계 280여개 민간 기업들 자발적 참여  
 애플, 협력사도 지원...BMW, 삼성SDI·LG화학에 참여 요구  
 한국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총량' 목표 K-RE100 도입

-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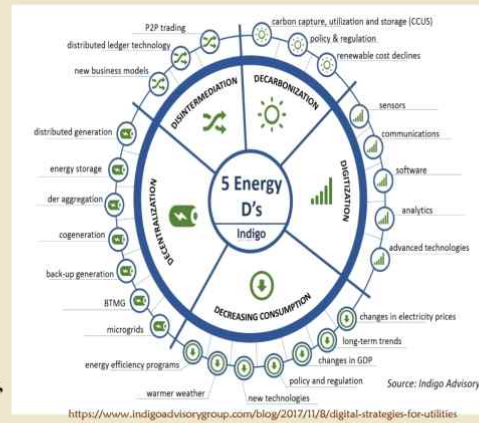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Id=148880736>



## 2. 탄소중립 해법과 의미

### 3) 2050 탄소중립: 탈탄소사회의 전환

- 자본주의 문명, 화석연료의 탄소사회에서  
 생태문명, 탈탄소사회의 전환
- 그 핵심은 에너지 전환(by 이유진)
- 전력산업의 방향: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소비감소, 탈중개화”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ization, decreasing consumption and disintermediation)
- 중앙통제 방식의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형성, 쌍방향의 온라인 소통, 시민 각자가 에너지 생산, 소비, 관리의 주체, 사회적 돌봄 회복, 정의로운 전환



이유진,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지역사회 실행방안.” <사회혁신과 그린뉴딜 포럼> 2020.12.1

### 3. 탄소중립의 신학적 의미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고 최악의 피해를 당한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 기후변화는 기후정의 문제
- 탄소중립/탈탄소사회로의 이행
  - 지속불가능한 폐쇄적 부정의한 구조 → 지속가능한 개방적 정의로운 구조
  - 에너지원에 대한 전적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
  - 소규모 지역 기반과 시민 참여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 노동, 돌봄, 삶의 어느 자리에서 소외, 배제되지 않는 삶 보장
  - 지역사회 회복 인프라 구축
  - 정부-지자체-시민의 거버넌스 민주주의 실현



이유진, "그린뉴딜 정책 전환과 지역사회 실행방안"

### 3. 탄소중립 신학적 의미

#### 1) AGAPE 프로세스\*의 생명경제 사상

-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빚은 인간/생명의 노예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약탈적 착취와 지배체제 비판
-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에 기대어 생명 경제로의 철저한 회개(메타노이아) 요청
- 세계경제: 상호협력과 상호연대의 공공선 추구
- 노동, 지식, 창조성이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 활동 주도, 개인-공동체-국가들이 협력
- 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및 생명에 대한 재정의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AGAPE))

### 3. 탄소중립 신학적 의미

#### 2) 살림의 경제: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

- 경제적 수탈과 공동체의 와해의 위기 속에서
-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 주체로서의 결단
- 연대와 돌봄의 상호 호혜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자립과 재건, 이스라엘 민족 갱신 운동
- 로마 제국의 위계적, 수탈적 지배 질서에 맞서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 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이 자 새로운 삶에 대한 움직임
-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에 대한 요청 및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19)



# 발표 1-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

송진순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 집행위원)

## 1.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배경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본 선언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 선언만은 아니다. 한 달 전인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시민사회, 기초지자체, 국회가 공동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에서 10월 선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 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sup>1)</sup>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에 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으나, 정부 정책의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증론이다.<sup>2)</sup>

그렇다면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무엇이며 구체적 실현 방안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산림을 통해 흡수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통해 제거되는데, 이렇듯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Zero라는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불린다. 흔히 넷제로와 탄소중립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IPCC에서 말하는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증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후중립(climate-neutral)은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sup>3)</sup>

사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세계 최초로 넷 제로를 선언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국인 중국은 9월 23일에, 일본은 9월 26일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복귀하면서, 바이든은 집권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5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100% 전환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는 70여 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120개 국가가 ‘탄소제로’ 국제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한 배경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제안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있다.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416375381056>.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4635>.

2) 탄소 감축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고 기술중심의 구조 전환은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없는 방안이나 분산 시민 주도형의 전환 정책에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다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6>.

3) 스마트에코 김익, 『국내IP환경동향보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21.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2°C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sup>4)</sup> 평균 온도 0.5°C 상승은 인류에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도 놓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 온도 상승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동식물의 멸종은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의 심화, 심각한 안보 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 2.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 및 의미

국가별로 제시한 넷제로를 향한 해법은 통상적으로 10가지로 요약된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 건축물 개축, 소재의 탈탄소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대중교통 증가, 항공과 해운의 탈탄소화, 산림복원, 음식물 폐기물 및 쓰레기 감량, 육식 감량 및 채식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1. 경제구조 저탄소화, 2.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과 4.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중핵과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넷제로의 핵심은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그간 불평등한 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른 데는 기후변화라는 물리적인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 무역 장벽이 현실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및 금융기관들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압박이 커진 영향이 크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재무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비전과 한국 기업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억 280만톤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Co2 배출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상 수출주도형 경제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의 애플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케아,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관련 무역업체와도 제품 공급망과 제품 생애주기에 있어서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정세에서 SK그룹과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하거나 신속하게 ESG 기업경영 원칙을 수용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환 과정은 기후재앙이라는 필연적 생존 요청에 응답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라는 피할 수 없는 기업 생애의 국제 정세의 압박이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이

4) 기상청 기후정책과, 「지구온난화 1.5도 SPM 주요 내용」 2018.10.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화석연료가 인류 문명을 단시간에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탄소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지구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넷제로 실현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밟아가지만, 오랜 시간 인류의 체질이 된 탄소사회의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기술혁신, 의식 구조 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이 총체적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소비감소, 탈중개화”(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ization, decreasing consumption and disintermediation)라는 5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부문별 책임 주체와 쌍방향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은 중앙통제방식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 구조 내 돌봄을 회복하고, 시민 각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관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 3. 탄소중립 사회의 신학적 의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전지구적 문명을 잠식하였다.<sup>6)</sup>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의,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 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문명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탈탄소사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단지 삶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술 변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는 환경위기와 경제 체제의 붕괴를 넘어 인류 생존권과 기본권의 위협, 전쟁과 분쟁,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不正義)를 포함하는 것이다.<sup>7)</sup> 작금에 추진되는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은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대규모의 중앙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는 물론 수요관리에 집중하는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sup>8)</sup>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인간 삶을 포함한 사회 체제의 전환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에서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시민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 서되 공유하고 나누는 행동 양식의 전환을 통해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는 길을

5) 이유진,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지역사회 실행방안,” <사회혁신과 그린뉴딜 포럼> 2020.12.1.

6)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심각한 양극화, 부의 편중과 사회적 불평등 등 약탈적 경제의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는 시장본위의 자본주의 체계가 얼마나 허구적 토대 위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현재 사회가 경제 체제에 파묻혀있는(embedded) 상황은 역사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칼 폴라니,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홍기빈 역 (서울: 책세상, 2008), 27-31.

7) 이강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경제와 사회』 107(2015), 141-43.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대응 역량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 토착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생활 공간이 소멸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는 매우 낮다. 요컨대, 기후변화는 분명한 현상이고, 그 원인은 인간 활동,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 기인하고,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생존권적 위협이 된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8) 윤순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 가능성,” <도시에너지포럼> 자료집 2017.9.5.

모색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가? 첫째, 아가페 프로세스에서 제안한 “생명경제” 사상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일찍이 WCC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가 낳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직시하면서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AGAPE))라는 개념의 아가페 프로세스를 제안했다<sup>9)</sup>.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창조신학과 아프리카 영성인 ‘우분투’(ubuntu, “너는 내 운명”) 사상에 근거하여 생명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한다. 생명경제 사상의 핵심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살림이 펼쳐지는 장이기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빚어지는 인간과 생명의 노예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와 약탈적 지배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에 기대어 생명 경제로의 철저한 회개(메타노이아)를 요청한다. 생명경제 사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라는 공공선 추구하며, 노동, 지식, 창조성이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개인 공동체 국가들이 협력하는 세계 경제를 비전으로 삼는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탄소중립에 기반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및 생명에 대한 재정의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서적으로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서에 나타난 살림의 경제를 통해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대규모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는 공급지향적 전력 수급방식으로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전력공급과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리는 소외되었고,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대부분 도시 에너지원은 서해안에 밀집된 대형 화력발전단지나 경북 해안가의 원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거리로 수송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체계는 도시가 지방을, 중심이 주변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생산된 모든 에너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 중심부로 빨려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방식은 일방적이고 착취적이고 수탈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이 그러하듯,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은 경제체제 내 은폐된 식민화의 과정으로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내포한 지속불가능하고 부정의한 구조에서 지속가능하고 개방적인 정의로운 구조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과 인간 노동과 삶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방식이 전환이라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 점에서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 시민참여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방식의 에너지 정책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져 온 지역 불균형, 양극화, 부정의한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탈성장 시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위한 변환점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과 가르침은 유대 민중이 당면한 경제적 수탈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주체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서로 연대하고 돌봄으로 공동체의 자립과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관계, 도시와 지역, 중심과 주변이라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였다(눅 4:18-19). 이는 자생적

9) WCC는 199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을 직시하면서 체제 비판을 넘어 공의와 연대의 신학적 개념을 마련했다. 2006년 아가페 부름(AGAPE Call)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생명경제라는 신학적 개념은 2013년에 최종 제안되었다. 신익상, “포스트 휴먼시대, 한국적 생명경제를 상상하다,” 『에너지 전환과 햇빛발전소 이야기』. 서울: 동연, 2018.

10) AGAPE BD, 4-7.

인 촌락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한 이스라엘 민족의 갱신 운동으로서 예수가 전하는 살림의 동력이었다. 그의 선포는 자유로운 주의 영, 주의 숨, 주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기름 붓고 그들과 함께하는 환대와 초대였다. 예수가 전하는 살림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한 참여와 연대 그리고 기쁨으로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로마 제국의 위계적, 수탈적 지배 질서에 맞서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지배와 착취를 기반으로 한 파스 로마나(Pax Romana)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에 기반한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었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은 파스 이코노미카(Pax Economica)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의 전환을 요청함으로써 예수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상상하게 한다.

## 발표 2.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교회의 과제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녹색교회네트워크 총무)

# 한국교회 탄소 중립 선언의 교회의 과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 박용권 목사 (봉원교회)

### 녹색교회,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2006년부터 해마다 녹색교회 선정
- 2018년 5월 그동안 선정된 녹색교회들이 '녹색교회 네트워크' 구성
-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독립교단 등 여러 교단의 80 교회
- 2020년 5월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회원교회들이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시작

##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의 신앙고백

---

- '녹색교회 네트워크'와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들의 신앙고백
-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에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이 아님
- 정부나 기업은 그동안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음
- 하나님과 재물(맘몬), 십자가와 영광,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응답해야함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

-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의 세 가지 구호
- 회개합니다.
- 실천하겠습니다
- 알리겠습니다

## 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찾기)

---

-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사람들의 욕심과 죄
- 지구생명공동체가 위협에 빠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를 요구
-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
-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 회개는 우리 공동체의 삶과 죽음을 결정
- 회개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

## 회개합니다 - 회개 운동

---

- 구약 시대에 범죄로 망해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회개 촉구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
- 하나님의 뜻보다 재물과 경제성장을 앞세우며 불의를 행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회개 촉구
- 구한말 나라가 망해갈 때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대부흥->희망
- 교회가 회개하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 실천하겠습니다 – 경건과 가난

---

- 좋은 물건이나 좋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소비하는 소위 '영끌' 소비 시대에 경건의 중요성 대두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야 소비에서 자유롭게 됨
- 경건 생활은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
-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지구와 후손의 미래는 없음
- 경건생활을 통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 실천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가난 실천

---

- 교회가 먼저 가난하게 - 구약 시대에서 천막에서 생활한 레갑 가문 사람들처럼
- 부유함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교회들
- 소박한 예배당과 소박한 예배
- 소박한 교회 생활, 에너지 생산, 탄소 흡수
-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사용
- 가난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 알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알림

---

-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 – 갑작스럽게 망한 사람들
-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인한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도 소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고 다가올 재난을 알리게 하신 하나님
- 기후위기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녹색교회들
- 기후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복음 전파

## 알리겠습니다 – 녹색교회 모집하기, 녹색교회 조직 강화

---

- 기후위기 시대임을 깨닫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교회를 녹색교회로 선정하기
- 녹색교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기후 위기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 녹색교회들이 연합하여 장로교회의 노회나, 감리교회의 연회 같은 행정 기구를 만든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갱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

- 기후위기 상황은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mammon을 섬기는지를 묻고 있다.
-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 그러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굳게 연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기후 재앙에 직면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

## 발제 2-1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교회의 과제

박용권 목사(봉원교회, 녹색교회네트워크 총무)

녹색교회,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6년부터 해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그동안 선정된 녹색교회들이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현재 예장 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독립교단 등 여러 교단의 80 교회가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회원교회들이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시작하였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의 신앙고백

'녹색교회 네트워크'와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교회들의 신앙고백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자는 누구이며,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녹색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신앙고백이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에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선언은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 자체로 한계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은 무엇보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면 창조세계는 계속 망가지고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지구생명공동체는 더 큰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기업은 그동안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다. 그들이 그동안 추구한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탄소중립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맘몬), 십자가와 영광,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버리는 것, 십자가를 선택하고 영광을 버리는 것이 우리 인류를 포함한 지구생명공동체를 살리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해 5월 녹색교회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녹색교회 비상행동을 시작하며 녹색교회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라는 세 가지 선언을 하였다. 녹색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세 가지 선언을 따라서 살고, 다른 교회들을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선언을 따라 사는 것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I. 회개 (새로운 삶의 방식 찾기)

우리 시대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사람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

과 죄이다. 지구생명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 창조세계를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삼고 마음껏 소비하고 파괴하였다. 이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요한복음 10:10) 교회가 공인한 가장 오래된 신조인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우리 공동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회개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이미 겪고 있고, 또한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다. 내연기관 승용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것처럼 탄소를 내뿜는 현재의 방식의 삶을 고집하면 인류 공동체의 미래도 없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대 안에 지구생명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 회개 운동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빠진 왕과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경고대로 나라는 망했고, 사람들은 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라가 망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쳤고,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자랑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 역할은커녕 창조세계를 더럽히고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재물과 경제성장을 앞세우며 불의를 행하고 창조세계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신격화하는 정부와 기업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관들이다.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구한말 나라가 망해갈 때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하였고 그것이 교회 대부흥으로 이어졌고, 또한 망해가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회가 회개하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 창조세계를 보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 II. 실천 (경건과 가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좋은 물건, 비싼 물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좋은 물건이나 좋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자

기 자신을 물건과 일치시키는 것이요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물건을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위 ‘영끌’ 소비 시대에 경건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야 물건의 소비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소비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경건 생활은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나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또한 경쟁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은 나날이 더러워지고 악화된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에 이런 지구가 여러 개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다.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지구와 후손의 미래는 없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며 소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기후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경건생활을 통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즐겁게 가난을 실천해야 한다.

### 구체적인 가난 실천

교회가 먼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레갑 가문 사람들은 천막에서 생활하였다. 동시대 사람들이 풍요로운 가난한 생활을 하며 타락하였지만, 레갑 가문 사람들은 가난한 천막 생활을 하며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유함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 세습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교회가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가난을 선택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 소박한 예배당과 소박한 예배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중단하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이 심하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예배를 중단하자. 값비싼 장비, 화려한 조명,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예배는 탄소 배출이 심할 수밖에 없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배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더 화려하고 흥미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을 그치고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로 돌아가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 소박한 교회 생활, 에너지 생산, 탄소 흡수

교회 생활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탄소가 배출된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서, 예배와 친교와 교육에서 창조세계를 더럽게 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소박한 생활은 더욱 필요하다.

교회는 소박한 예배당과 예배, 그리고 소박한 생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기 설치나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야 한다. 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큰 교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사용

교회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물건이 친환경 제품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개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보전을 위한 선교가 필요한 시대이다. 창조세계를 보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몽골 은총의 숲'처럼 황폐한 곳에 나무를 심는 일에 선교비를 지출하자.

#### 가난한 삶으로 초대하기

교회와 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길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자.

### Ⅲ. 알림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알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때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망하고 말았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빠져 살고 있다.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면서 장차 임할 재난을 사람들에게 알려 경고하라고 하시면서, 만약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해 망하면, 그들이 망하는 책임을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물겠다고 하셨다. 이 시대가 기후 위기 시대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특히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기존의 녹색교회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녹색교회로 선정되었다고 여기면 좋겠다.

아직 기회는 있다. 교회와 인류가 현재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기후 재앙을 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녹색교회들이 나서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하자. 기후위기를 알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복음 전파이다.

#### 녹색교회 모집하기

우리들은 먼저 교회들에게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런 알림을 받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교회들을 녹색교회로 세우자.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공동으로 녹색교회를 선정하는 있는데, 선정 방식을 좀 변경하여, 기후위기 시대임을 깨닫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성도들과 이웃에게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교회라면 녹색교회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기후위기 시대임을 깨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탄소중립에 참여한다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 녹색교회 조직 강화

현재 녹색교회들의 활동이 개별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회들 간의 연대도 아주 느슨하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녹색교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녹색교회들

이 연합하여 장로교회의 노회나, 감리교회의 연회 같은 행정 기구를 만든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갱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우리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mammon을 섬기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굳게 연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런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기후 재앙에 직면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



발표 3.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이진형 사무총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1.

- 2021년 3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 2050 탄소중립 "현실적으로 도전적 과제이지만, 하지만 가야할 길"
- 실행 계획 등 구체성 결여, 당위성만 주장
-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의 기후위기 인식의 한계
- 2021년 6월 중 '2021년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예정 : 실행계획 포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2.

- 해외 정부 : 미국 '그린 뉴딜', EU '넷 제로'
- 한국 정부 :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한계, 녹색성장
- 시민 사회 : 탈성장,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논의 확산
- 5월 중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예정 :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의 국회, 정부, 기업의 요구

1.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 목표와 계획 수립,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2.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경제의 적극적 모색
  -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
3.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

4.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의 한국 기독교의 결단

1. 기후위기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 시행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 개발
3.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시민운동그룹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
5.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시대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성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의 한국 기독교의 결단

- 기후위기 교육 확대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점에 집중
- 생태적 전환에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 초기에는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사업, 생태목회 매뉴얼 등이 중요한 역할
- 교육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조직'

- 기독교환경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교단 환경위원회,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등 이질적 조직 간의 관계 설정 : 플랫폼 사업
- 환경문제를 넘어선 체제와 문명의 위기라는 인식이 관건
- 생태적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존재 양식 모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단 총회의 결의 필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조직'

1.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체계적 연구, 장단기적인 실행 계획 수립
2. 각 교단, 지회, 교회의 관련기구 조직으로 구체적 실행
3. 시민사회와의 연대, 세계교회와의 협력 필요

기후위기라는 한국교회 공통의 이슈 : 교회 개혁, 생태적 전환의 계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 발표 3-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이진형 사무총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난 5월 20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한국 기독교의 기후위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고백, 참회, 진실, 요구, 결단의 내용으로 발표된 이번 선언문은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우려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담긴 신앙고백이자 실천행동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몇 가지 전망과 논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지난 2021년 3월, 환경부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라는 A4 용지 35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추진 배경 및 경과’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확립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활동과 2020년 10월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그리고 2020년 12월 ‘장기저탄소전략’(LEDS)의 UN 제출의 경과를 정리하면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이 ‘현실적으로 도전적 과제이지만, 하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가 이행계획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환경부가 명확한 탄소중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만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미 EU와 미국 바이든 정부 등은 분명한 정책 기조 속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의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는 2021년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긴 2021년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재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운동 진영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를 앞두고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EU와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발표한 ‘2050 넷제로 계획’에 비해,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은 목표 자체가 대통령의 갑작스런 선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부처가 마지못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한국 정부에서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역시 2050년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국회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연구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공무원들의 밀실 논의 속에서 계획 발표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가 여전히 친 산업의 입장에 서서 녹색성장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성장을 준비하며 노동자들의 건강한 일자리를 보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약자와 미래세대를 향한 기후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5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인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조차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에서는 국회와 정부 기업을 향해,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고,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할 것,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의 내용이 온난화로 인한 영구동토층의 메탄가스 생성을 산정하지 못한 모델이므로,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탄소배출을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순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는 IPCC 목표보다 훨씬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선언문이 한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법제화와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요구는 현재 준비 중인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기독교가 다음의 결단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고, 둘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교시민운동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넷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를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다섯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과 <생태정의 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단의 내용이야말로 이번 선언문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한국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이어지는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단의 내용이 참여한 교단과 기관 안에서 구체화되고, 한국교회 안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선언문에 담긴 교회의 고백과 참회, 사회를 향한 요청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이 다섯 가지의 결단은 크게 교회에서의 기후위기 교육 확대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점에 집중되어있다. 교회가 민간 건물, 수송 분야에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총량을 산출하여 온실가스의 양을 감축하는 데에도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은 산업

분야나 민간 분야에서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 양 전체에 비한다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사회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편과 희생을 무릅쓰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태적 전환이 사회의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는 합의의 과정에 종교적인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점일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기후위기 대응의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초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 특별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 등이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해당 교육과 매뉴얼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5년, 10년 뒤의 기후상황과 사회적 위기 상황을 예측한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은 단지 기후위기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기후위기 적응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다섯 가지의 결단 가운데, 네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조직’이 나머지 네 가지 결단의 지속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각 교단과 기독교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한 해의 환경 이슈를 나누고 공동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독교 환경회의’가 조직되어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는 교단과 기관이 참여하여 환경주일과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생명문화위원회’가 조직되어있다. 이와 아울러 각 교단 안에는 교단의 상황에 따라 환경선교, 생태정의, 생태공동체의 과제를 논의하는 생태환경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최근 사회선교단체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선언의 후속 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를 조직하려고 할 때, 이들 조직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가 한국교회 안에서 기존의 환경 문제를 넘어선 체제의 문제, 문명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만일 한국교회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또 하나의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만다면 기존 조직들의 통합, 확장의 형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번 선언문의 도입에서 밝히고 있는 ‘지구적 차원 생물종과 인류 전체의 위기’의 문제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기구는 단순한 문제의 대응 기구 차원을 넘어서, 생태적 전환의 비전을 기반으로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모색하는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긴박한 기후위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한시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되는 각 교단의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현의 안으로 상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조직 안이 총회의 결의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단의 총회 본부가 관련된 안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7.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 교단과 기관의 책임 있는 실무자들과 함께 기후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진 기후, 환경, 사회, 경제, 신학, 교회의 전문가들이 이 기구에 참여하여,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장단기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교단과 기구에도 해당 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에 교단의 책임 있는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에서 논의된 실행 계획이 교단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단의 지회와 지교회에서도 해당 기구를 조직하여 한국 교회가 공동의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가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세계교회의 기후운동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그저 교회 안의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상호소통 가운데 실제적인 탄소저감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교회가 일정부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세계교회의 자매형제 교회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국제적 기후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조만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발표되면 한국사회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향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적 논쟁에 주요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적 선택과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한국사회가 국제사회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배출 저감의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미리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고 현재의 기후약당국가를 고집한다면 결국 더욱 심각해진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에 안간힘을 쓰게 될 뿐이다. 이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성장지향의 관성을 막아낼 중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는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을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를 생태적 전환의 길로 이끄는 길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토론 1. 이해솔 활동가

(YMCA 전국연맹, 기후위기 기독교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교회 2050년 탄소중립의 의미와 실천의 관점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이해솔

### 개요

제목

1. 위기의 본질

2. 문제해결의 관점

3. 교회의 역할

부제

자본주의 :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시스템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한 정치적 개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교회공동체

## I. 위기의 본질 - 자본주의 :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시스템

- 17c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망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
- 생태위기, 기후위기는 인류의 탐욕의 반복된 역사
- 오늘날 기후위기가 그 이전의 역사와 다른 점

## II. 문제해결의 관점 -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한 정치적 개입

- 에큐메니컬, 기독교 사회선교 운동의 현황
-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운동

### III. 교회의 역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교회공동체

- 점차 줄어드는 교회의 역할
- 내 삶과 유리되지 않는 종교활동
-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 토론 2. 정유현 연구원

(평화교회연구소, 녹색당 전국사무처 활동가)

# 한국교회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실천

- 한국교회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토론. 정유현  
평화교회연구소 연구원 / 녹색당 조직담당 활동가

## 1.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학적 의미

❖ 핵심 포인트: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농민, 노동계층에게 생존 문제이며, 단순히 생태위기를 넘어 불평등, 부정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 토론거리1. 어떻게 접근?

→ 정의로운 전환이란, 경제체제+에너지+노동+지속가능한 일상의 '대전환'이 되어야 함

➢ 이 과정 안에 농.어민, 사회적 약자, 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배제되지 않고 의사결정, 논의과정에 반영되도록 초대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당면한 과제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신학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

❖ 핵심 포인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과 가르침은 서로 연대와 돌봄의 공동체 강조,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 새로운 삶에 대한 움직임

◆ 토론거리2. 창세기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신학적 의미 추가!

- 창 1:29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 인간이 땅에서 나는 채소(채식)만으로 충분하도록 창조
- 창 2:5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고 그러므로 채소도 나지 않았다” → 아담은 땅(에덴)을 갈고 일구는, 농사하는 사람
- 창 3:23 “하느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역할은 농사하는 노동. 농사는 인간 삶의 근본 양식 = 농자천하지대본

➢ 사람의 근본인 토지(땅, 지구), 농, 농사, 노동 존중의 의미

## 2.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교회의 과제

❖ 핵심 포인트: 개인은 소비 줄이는 가난한 삶으로 초대, 교회는 소박한 예배 추구, 녹색교회의 조직화. 개인의 과제와 교회의 과제 나누어 제시

◆ 토론거리3.

1) 녹색교회 실천의 예와 공공성 확장

→ 섬돌향린교회 / 소비를 줄이는 것만큼 이미 소비되고 버려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처리해야할 지가 논의돼야.

2) ‘가난’, ‘소박한 삶’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 ‘우리’ 안에 누가 있는 지 살펴보아야. 교회 내에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와 신앙이 다르기에, 다양한 삶의 조건 이해하는 것이 먼저.

→ 이미 절박한 가난에 놓여진 삶을 배제하는 언어는 아닌지 논의 필요

→ ‘자발적 가난’의 미화, 가난을 대상화하는 우려

“탈성장이 추구하는 ‘소박한 삶’에 노동계급보다 최상층 부르주아들이 더 매료돼 있다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 이상 뺄 것도 줄일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이들이 ‘이제 성장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인 소리로 들린다.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은 원래 없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가난한 이들의 것이건만, 이제는 가진 자가 빈자의 미학마저 빼앗아 간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만 추구되는 탈성장은, 분명 하나의 환상이다. 지배 담론은 모두에게 필요한 소박한 삶의 양식을 특권화함으로써, 미적 취향으로 소비되는 탈성장을 동경하게 만들고 체제에 도전하는 저항담론으로서의 탈성장을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다. (중략) 그들이 탈성장의 사적 경로를 가졌다면, 부유층과 달리 노동자들은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누구보다 소박한 삶을 꿈꾸더라도 개인적 탈출구를 가질 수가 없다. 99%에겐 99%를 위한 탈성장의 경로가 필요하다.”

- 채효정, 정치학자

### 3.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제안

❖ 핵심 포인트: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 제시, 액션 가이드 제안

◆ 토론거리4. 현실은? 국가/정부 태도? 국민에게 물 절약, 쓰레기 줄고, 재활용 잘하고, 자전거 타라는 행동 요구. 기후위기 결의문 채택한 국회가 탄소배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여러 공항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투자 강행.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 최우선 과제 X, 탄소중립 의지 X

→ 개인에게 일상적 실천 독려하고, 교회 조직하고, 교회 내 역할 제시보다 교회 내 소외된 목소리에 집중, '생존의 문제'인 이들을 조직해서 정부, 국회를 향한 결집된 과감한 행동을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닌지.

◆ 토론거리5.

1) 문제는 기후위기 = 자본의 위기+노동의 위기. 이 과정에 누가 논의에서 배제되었는가?

→ 가장 피해보는 이들의 이야기. 소수자, 노동자, 여성, 어린이, 노인에 대한 호명 없는 운동과 조직 X

→ 여전히 획일화/보수화된 교회운동 주체들(전문가, 중년 남성, 목사만?) 이 구조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기후운동은 새로운 판으로 만들어져야.

→ 기후운동의 주체로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

➢ 당장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의 노동문제, 농업의 먹거리 문제, 노인/소수자의 주거 및 의료 지원의 문제, 여성의 돌봄노동 문제, 청소년들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

2) 대안은 교회 내 기후위기 관련 논의와 조직/교육의 과정에 여성, 청소년, 노동자, 농어민 참여하도록 논의의 장 마련하고 보장하는 것

→ 논의의 자리에 여성을 초대해달라

→ 청소년을 발언자로 모시라

→ 다양한 현장을 고려하여 접근하라

➢ 이 과정이 있어야,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 가능

3) 에너지전환과 노동/생존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 필요

→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평등한 기후정의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

→ 코로나19로 늘어난 돌봄 노동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이들, 노동 불안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돌봄노동, 보건의료/복지, 교육 등의 공공성 확장에 대한 논의 함께



## 〈선언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기독교 탄소중립 선언문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기업의 상품생산과 판매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과 2020년 10월 정부가 천명한 ‘2050년 탄소중립’을 환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위기 준비를 미루자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EU가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금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만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하는 탄소국경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자 한국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후약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신 기후 세계체제에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기업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단: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교시민운동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과 <생태정의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총무 이홍정

**회원교회 교단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정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유영희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회원연합기관 대표**

기독교방송(CBS) 한용길

대한기독교서회(CLS) 서진한 사장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채수일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송인동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